

전남교육청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효과 크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올해 기초학력 부진 조기 예방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가 현장의 호응을 받으며 성과를 내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기초학력 부진 원인이 있는 초등 1~2학년 학생을 조기에 발견, 개별 지원함으로써 학습부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 1학기부터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다. 22개 시·군에 1명 이상의 초등 정규교사 40명이 기초학력 전담교사로 배치됐다. 이 중 문해력 전담교사가 34명, 수해력 전담교사는 6명이다.

지난 1학기 동안 전남 도내 170명의 학생이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기초학력 전담교사의 개별지도를 받았다. 이들은 객관적 진단 결과 해당 학년 보통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별도의 교실에서 주 3회 이상 1대1 맞춤형 수업을 받았다.

기초학력 전담교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및 온라인 개학 기간에도 1대1 대면 개별화 지도를 해소의계층과 학습격차가 있는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메우는 데 한 몫을 담당했다. 또 작은 학교가 많은 전남의 특성을 반영해 9명의 전담교사는 학교를 순회하며 지도했다.

성과는 컸다. 도 교육청이 분석한 '2020년 상반기 기초학력전담교사 운영성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검사 영역(문해력 4개, 수해력 5개)에서 고루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특히 한글 쓰기과 읽기 유창성, 덧셈과 뺄셈 부분 향상이 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은 2학기에 수업 횟수가 늘어하면 이들 개별지원 학생의 문해력 발달은 더

비약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초학력 문해력 전담교사로 활동하는 순천북초 신관희 교사는 "교실 수업에선 투명 인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던 아이가 한글 교실에 오니 눈을 반짝이며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의 지원을 받는 도내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는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된 학생의 변화를 보고 읽고 쓸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전남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출발점을 고르게 하는 학습복지 차원에서 기초학력 지도에 나서고 있다"면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가 한 아이의 배움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 실현과 미래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운영성과 분석 그래픽

코로나19 시대, 전남교육의 기초학력지도는 특별합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시행

초 1, 2학년 읽기·쓰기, 셈하기 전담교사 일대일 맞춤 지도

전남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예비 교사(대학생) 멘토, 기초국어, 기초수학 등 학습코칭 지원

전남교실ON.com 개발

수준높은 원격수업 콘텐츠로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 우수사례 선정(기획재정부)

